



이지아, 유진, 김소연(왼쪽부터)이 주연한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가 수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13%대(닐슨코리아) 시청률을 훌쩍 넘겼다. 사진은 드라마의 한 장면. 사진제공 | SBS

“몰래 보는 재미” vs “막장의 끝”

“대중의 욕망 잘 건드린 히트 상품”
자극적 소재·전개에도 시청률 13%
“불륜·지나친 폭력·모방범죄 자극”
청와대 국민청원 등 민원 200여건

“막장”이지만, 재미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를 '본
방사수' 중인 30대 남성 권모 씨는 “주변
에서 그런 ‘막장’을 왜 보냐고 할까봐”
이름을 밝히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티
는 못 내지만 나처럼 매회 챙겨보는 사
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그는 “욕하면서
몰래 본다는 말이 딱 맞다”며 웃었다.
10월26일 방송을 시작해 겨우 4회분

을 방송한 '펜트하우스'가 자극적인 소
재와 전개로 방송가 안팎의 '뜨거운 감
자'가 됐다.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헤
라팰리스' 입주자들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들춰내는 드라마는 불륜·아
동학대·10대 비행 등 설정을 노출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극적이다”며 폐
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청률은
점점 치솟아 첫 방송 9.2%(이하 닐슨코
리아)에서 3일 13.9%까지 올라섰다. 드
라마를 향한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쏟아
지는 상황인 셈이다.

●호(好)…“욕망 건드린 잘 만든 상품”
드라마는 작년 SBS '황후의 품격' 등
으로 스타의 반열에 올라선 김소연 작가
의 신작이다. 김 작가는 출생의 비밀, 방

화, 암투, 살인 등 자극적인 소재를 다뤄
온 탓에 '막장 대모'로 불린다. 예시청자
들의 시선은 흡인력 강한 김 작가의 필
력으로 쏠린다. 자극적이라 하더라도 악
인이 몰락하는 '사이다 결말'로 빠르게
달려갈 것이라 기대 때문이다.

드라마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8일 “예술적 완성도와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대중의 욕망을 잘 건드린 상품으로
서 분명 경쟁력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
수는 “부동산과 교육문제를 결합시킨 소
재를 내세운 시의성 강한 드라마”라면서
“시청자의 갑론을박을 자아낸 것 자체가
성공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불호(不好)…“아무리 드라마이지만” 난색
우려도 이어진다. 드라마 시청자 게시

판에서는 첫 방송 이후 “아무리 드라마
이지만 지나치게 폭력적이다” 등 비판
의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모방범죄'를 자극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심의
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관
련 민원만 8일 현재까지 200여 건을 훌
쩍 넘겼다.

SBS는 3일 방송분을 19세 이상 시청
등급로 편성해 방송했다. 앞으로도 방송
사 자체 심의를 거쳐 시청 등급을 조정
할 예정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자극적인 설정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시청률만 앞세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50년 연기인생 송재호 별세...애도 물결

후배들 위해 촬영 거부까지했던 고인
작년 3월에도 촬영...1년간 지병 앓아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목회자가 됐
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작품의 속편 주
연이기도 했다. 7일 배우 송재호(83)가 숙
환으로 타계한 가운데 아들과 엮힌 사연이
더욱 애뜻하게 전해지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타계한 송재호는 1937년
평안남도 평양 태생으로 동대내 국어국문
과를 졸업하고 1959년 KBS 부산방송총국
성우로 데뷔했다. 1964년 영화 '학사주점'



7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난 배우 송재호를 향한 추모
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고인의 빈소가 차
려진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사진공동취재단

으로 본격 연기자의 길에 나서 1975년 영
화 '영자의 전성시대'로 스타덤에 올랐다.

1982년 영화 '꼬방동네 사람들'을 비롯
해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등으로 꾸준히
활약한 그는 '살인의 추억' '그때 그 사람
들' '화려한 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
으로 젊은 관객을 만났다. '왕과 비' '세상
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등 화제의 드라
마를 일군 고인은 '부모님 전성서' 등을 통
해 따스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남겼다. 1년
가량 지병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진 그는
지난해 3월 영화 '질투의 역사'까지 50여
년 세월을 연기자로서 열정을 바쳤다.

아들은 아버지의 열정을 한때 이어받았
다. 장남 송영춘 목사는 1982년 아버지의
대표작인 '영자의 전성시대'의 속편 주연
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신앙심 깊었던 아

버지의 뜻에 따라 목회자가 됐다. 배우 조
선목은 8일 “어릴 적부터 지켜본 고인은
온화하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살갑게
후배들을 챙기며 푸근히 안아줬다”고 돌
아봤다. 고인은 2012년 후배 연기자들의
밀린 출연료 지급을 촉구하는 촬영 거부
에 나서기도 했다.

1979년 사격선수로도 나선 고인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사격 심판으로도 활약했다. 1999년 하남
국제환경박람회조직위원회 홍보위원과
야생생물관리협회장 등을 지내며 환경문
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0일 오전, 장지는 경기도 이천 에덴낙원
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석·박사 논란' 홍진영, 학위 반납 카드까지 꺼냈는데...

논문 카피킬러 검사 '표절률 74%'
조선대 재직 아버지 찬스 논란까지

석사 학위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가
수 홍진영이 모든 학위를 반납할 뜻을 밝
혔지만 논란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그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연예활동을 강
행하자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홍진영은 2009년 '한류'를 통한 문화
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
목의 논문으로 조선대 무역학과에서 석
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 같은 대학원



홍진영

에서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덕분에
그는 '연진팔'이라
는 이미지로 가요
계 안팎에서 주목
받았고 내놓는 곡
마다 히트해 승승
장구했다.

하지만 최근 표절 심의 사이트인 '카피
킬러'로 검사한 결과 당시 석사 논문의
표절률이 74%에 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아버지가 조선대 교수로 재
직할 것이 그의 학위 취득에도 영향을 미

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홍진영은 당시 논문 심사를 맡았던 교수
의견을 따라 “당시에는 인용 내용과 참
고 문헌 등 주석을 많이 다는 것이 추세
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홍진영은 8일 “석사 학위 취득 당시
시간을 쪼개 지도교수와 상의하며 최선
을 다해 논문을 썼다”며 억울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사과드
린다. 이 모든 게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
라며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반납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는 문제없이 통

과됐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 단지 몇 %라
는 수치로 판가름되니 제가 어떤 말을 해
도 변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답답하고
속상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학위 반납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면서 “억울하지만 정면 돌파하겠다”는
홍진영의 의지와 도의적 책임에 따라 연
예활동 자체를 멈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맞부딪치면서 논란은 계
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여자친구

여자친구, '디스코 퀸' 변신 오늘 오후8시 컴백쇼 생중계

걸그룹 여자친구가 데뷔 6년 만에 첫 컴백쇼를 열고
전 세계 팬들과 만난다. 여자친구는 9일 오후 8시 SBS
MTV와 유튜브, 빅히트 레이블 등에서 생중계되는 '걸
프렌즈 컴백쇼-화:발푸르기스의 밤'(GFRIEND COME
BACK SHOW-화:Walpurgis Night)을 열고 타이틀곡
'마고'(MAGO) 무대를 처음 공개한다. 그동안 앨범 발
매 기념 쇼케이스 등을 개최하고 팬들을 만나왔지만, 방
송을 통해 컴백쇼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
큼 이들의 달라진 입지 등이 확인할 수 있다.

여자친구는 컴백쇼에서 앨범과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
를 공개하고, 준비한 다양한 코너들을 통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다채로운 매력도 선보인다.

특히 '디스코 퀸'으로 변신을 예고한 여자친구의 색다
른 퍼포먼스가 가장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정연 기자

연예뉴스 HOT 3

블랙핑크 '새끼 판다' 동영상 공개 유보

새끼 판다를 맨손으로 만졌다가 중국 내에서 논란이 된 걸
그룹 블랙핑크가 결국 관련 영상 공개를 유보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8일 “비전문가가 새끼 판다와 밀접 접
촉하는 행동은 또 다른 차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
다는 보전 전문가들의 권고와 국제 협력 관계를 존중해 결
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블랙핑크는 최근 에버랜드
에서 태어난 새끼 판다 푸바오, 2016년 한국에 온 판다 화
니를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접촉하는 영상에
고편이 공개돼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따라 7일 업로드 예
정이었던 '24/365 위드 블랙핑크'의 마지막 에피소드 영상
은 공개하지 않았다.

BTS 슈가, 어깨수술 재활 치료 전념



슈가

그를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최근
받은 어깨 수술로 재활 치료에 전념한
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8일
“슈가가 8년간 지속해서 문제가 됐던
좌측 어깨 부위의 파열된 관절외수를
봉합하는 수술을 3일 받았다”며 “당분
간 일부 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식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회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가는 2012년 개인적인 사고를 겪은 뒤 이듬해 어깨의 상
완골 탈구 진단을 받았다. 슈가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
러분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해주시고, 잠
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SBS '생명나눔콘서트' 오늘 연다

SBS가 창사 30주년을 맞아 '생명나눔콘서트-나눔이 우리
를 지킨다'를 연다. 9일 오후 5시 경기 용인 에버랜드 장미
원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생명나눔콘서트'는 가수 윤하,
조현아, 원미연, 그룹 모모랜드, 온앤오프, TOO 등이 무
대를 채운다. 연기자 유이와 최기환, 조정식 SBS 아나운
서가 진행한다. 대한적십자사 115주년을 기념해 선정된
다(多) 헌혈자 115가족이 초청된다. 제작진은 “나눔으로
우리를 지킨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구촌 너머보다는 우리
옆 이웃들의 어려운 사연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면서 프
로그램 취지를 전했다.